



주간통일정세 2008-34(2008.08.18~08.24)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승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3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 北매체, 李대통령 UFG.인권 발언 비난(8/23, 통일신보, 8/24, 노동신문)

-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연습 첫날 국무회의에서 국지적 분쟁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책동”이라고 비난
- 통일신보는 23일 ‘극도의 대결망언, 전쟁폭언’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을지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에 있어 국지적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태세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을 “사실상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고 도저히 용납 못할 전쟁폭언”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은 24일 ‘대결기도를 드러낸 불순한 인권소동’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인권문제가 적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인권문제를 꾸며내고 그것을 여론화해 우리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을 흐려놓는 동시에 북남대결을 고취하며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 압살의 범죄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흉악한 야망의 발로”라고 비난

● 北외무성, UFG때문 美검증 요구에 더 각성(8/20, 외무성대변인)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비난하면서 “미국이 핵문제와 관련해 들고 나오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검증’과 같은 부당한 요구들에 대해 더더욱 각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힘.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당국은 18일부터 남조선 전역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 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있다”며 “이 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으로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당국이 추구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북남대결 정책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

● 北, 통일부, 새정부서 ‘분열부’로 변해(8/20,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분열부로 변한 통일부’ 제목의 글에서 최근 통일부가 전교조 등의 대규모 대표단의 방북을 불허하는 것 등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분열부로 변했다”고 비난
- 신문은 김 장관에 대해서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다른



나라들에 ‘햇볕정책’, ‘포용정책’의 지지를 구걸하는 데 앞장”섰다가 이명박 정부에선 “반공화국 대결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고 불신을 나타내고 “김하중이 장관으로 있는 통일부는 외교통상부를 중시하는 이명박의 눈에 들려고 분열부의 역을 놓고 있다”고 주장

- 그러나 신문은 통일교육원장에 당초 거론되던 홍관희씨가 아닌 박상봉씨가 임명됐음에도 “북남대결 광신자로 소문난 홍관희탄자를 통일교육원장 자리에 앉혔다”고 ‘오보’를 해 남측 정세 변화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기도 했음.

● 北, 속에도 없는 남북대화 비난(8/19, 민주조선; 8/19 평양방송)

- 민주조선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광복절 기념식에서 “전면적 대화와 경제협력”, “평화정착”을 말한 지 3일만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
- 평양방송은 ‘조국통일 3대원칙’가운데 ‘평화통일의 원칙’을 소개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미군 철수와 남북간 군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나. 경제 관련

● 北천연기념물, 용진 참김(8/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황해남도 용진 앞바다에 분포돼 있는 참김은 품질이 좋고 원종 보존에도 가치가 커 북한 당국이 천연기념물(제134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음. 용진 참김은 서해 용진 앞바다의 파도, 룡호도, 신도 등의 주변에 분포돼 있고, 이들 바다 수역 1천200ha의 면적은 ‘용진수산자원보호구’로 설정돼 참김 양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 용진 참김은 외화벌이용 수출 상품으로도 한몫하고 있음.

다. 군사 관련

● 北김정각, 한.미 전쟁책동, 수수방관 않을 것(8/24, 연합)

- 북한 인민군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은 24일 남한과 미국의 “전쟁준비”로 한반도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미군부와 남조선 호전세력의 반공화국 전쟁책동에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그는 24일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영도’ 48주년 중앙보고대회 경축보고회에서 “조선반도에는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호전세력과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의 집요한 침략전쟁 도발책동으로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 김 제1부국장은 “우리는 전민족의 통일의지가 집대성된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차게 벌어나갈 것”이라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반통일세력의 분열책동을 짓부수고 평화변영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혁명 영도’는 그가 남산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하기 직전인 1960년 8월25일 김일성 주석과 함께 ‘근위서울 류경수 105땅크(탱크)사단’을 방문한 것을 일컫는 것으로 8월25일을 기념하는 행사는 2005년부터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

● **북한군, 을지연습 철회 촉구(8/18,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평양방송)**

-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18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북침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훈련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면서 즉각 중단을 요구
-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군측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시작했다”며 “미 군부의 새로운 전쟁 각본에 따라 감행되는 이번 합동 군사연습은 우리의 전략적 거점에 대한 미제 침략군의 중.장거리 정밀타격과 신속 기동타격의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 새로운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비난
- 담화는 이어 “미국의 집요한 적대시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며 “이것은 오늘 우리 군대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주장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이날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이 인권문제니 뭐니 하면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약탈하게 중상모독하고 있는 때에 벌어져 더욱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힘.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평양외국어학원 비결은 ‘몰입식’(8/23, 조선신보)**

- 최근 각각 중국과 러시아가 주최한 중국어 국제경연과 러시아어 국제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북한의 평양외국어대학 부속 평양외국어학원 학생들은 고교급에서 북한 최고의 외국어 엘리트들임. 이 학교 학생들은 수업은 물론 일상에서도 전공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전공어의) 100% 생활화’라는 몰입식 교육을 받는다고 조선신보가 23일 소개
- 평양외국어학원은 우리 식으로 하면 고교 과정에 해당, 외국어 엘리트층의 엘리트가 모인 평양외국어학원엔 영어와 중국어, 러시아어를 비롯해 8개 외국어 강좌가 만들어져 있고, 학생들은 일반교육과 함께 전문적인 외국어 교육을 받고 있음.



- 조선신보는 평양외국어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언어는 “세계 공통어로 인정돼 있는” 영어이고, 그 다음이 중국어, 러시아어 순이라고 설명, 학교는 중국어와 러시아어의 ‘100% 생활화’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외국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고회로를 만들어낸다고 덧붙임.

● 北, 허기 늦추는 콩국수 개발(8/23, 조선신보)

- 북한의 교육성 산하 실험기구연구소가 일반 국수에 비해 식사 후 허기가 늦게 찾아오는 새로운 콩국수를 개발했다고 조선신보가 23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이 콩국수는 콩과 옥수수를 일정 비율로 섞어 면발을 뽑은 것으로, 북한에서 끈기가 없는 콩으로 국수를 만드는데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

● 北, 철새 보호 대외협력 강화(8/22, 조선신보)

- 북한이 뉴질랜드 ‘미란다자연기금’과 연계해 철새들에 대한 조사사업을 벌이는 등 철새 보호를 위해 대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2일 보도, 지난 5월 초 뉴질랜드에서 떠난 붉은배도요새와 큰뒷부리도요새 등이 황해남도 은률과 평안남도 문덕에서 발견된 뒤, 북한의 조선자연환경보호기금과 국가과학원 생물분원 연구사들이 지금까지 현장에서 조사·감시활동을 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소개

● 北, 식량난속 이상화물 계속 건립(8/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혁명사적비 ‘빛나라 백두산 3대장군(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의 불멸의 영도 자욱이여’가 함경북도 경성애자공장에 건립됐다”고 보도, 이 공장은 김 주석 부부와 김정일 위원장이 모두 각각 시찰
- 조선중앙통신은 7월 김 주석 부자와 관련된 ‘혁명 사적’ 표식비도 자강도 희천시 평원담공장을 비롯해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다고 소개했었음. 또한 북한은 8월 들어선 자강도 고평군, 강원도 세포군, 황해남도 신원군 등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모자이크 벽화를 잇따라 건립했다고 보도

● 재미동포 北아리랑 관광단 모집(8/22, 민족통신)

-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우리관광여행사(대표 이종찬)가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북한 집단체조 ‘아리랑’ 관광단을 모집했다고 재미동포 온라인 매체인 민족통신이 보도
- 여행사의 관광 일정에 따르면 22일까지 방북 신청서를 제출한 재미동포는 중국을 경유해 9월 6일부터 13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평양 시내와 고려의학병원, 룡강 온천, 서해갑문, 판문점, 묘향산 등을



둘러봄. 9월 6일까지 신청서를 내는 2차 관광단은 9월 20~27일 방북할 예정

- 여행사는 관광단 모집 대상이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재미동포이며 1인당 관광경비는 미국-중국간 항공료를 제외하고 아리랑 공연 관람비 150달러와 호텔 숙박료 등을 포함해 2천250달러임.

● **北, 전 주민 체력검정 실시(8/12, 민주조선)**

- 북한이 8~9월 두달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력장인 '인민체력검정'을 위해 "100% 참가, 100% 합격"을 독려, 북한의 인민체력검정은 1948년 7월 인민위원회 교육국 명령으로 공포된 이후 남자 9~60세, 여자 9~55세를 대상으로 매년 건강태권도, 대중 율동체조, 달리기, 높이뛰기, 수영, 행군, 턱걸이, 수류탄 던지기 등 11개 종목에 대해 실시
- 민주조선은 "인민체력검정 사업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건장한 체력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하며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8~9월 인민체력검정 월간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모두가 합격"할 것을 촉구

● **'9·9절' 기념 대학생 IT전시회(8/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정권 수립 60주년(9.9)을 기념한 '전국 대학생 정보과학기술전시회'가 21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김중린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용진 교육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으며, 700여 건의 발명·기술 제품이 전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새 집단체조 공연 '번영하라 조국이어'(8/21, 조선신보)**

- 북한이 정권 수립 60주년을 맞아 새로 만든 집단체조 '번영하라 조국이어'는 북한 정권 60년 역사를 60분에 걸쳐 서사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조선신보가 21일 소개
- 북한의 대표적인 대집단체조인 '아리랑'이 평양 룡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밤 공연'을 하기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이 집단체조가 '낮 공연'을 하고 있어 "건국 이래 처음"으로 서로 다른 두 집단체조가 동시에 공연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환영 경축장과 서장, 종장을 포함해 모두 6개 장과 12개 절로 구성된 이 공연은 체조대, 배경대(카드섹션), 음악 등이 어우러져 고 김일성 주석의 "혁명 업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영도"를 선전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번영하라 조국이어'는 8월 12일 평양 룡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개막됐으며, '아리랑'은 지난 4일 개막돼 내달 말까지 계속될 예정



- **北 춘궁기 농장별 20~30여명씩 사망(8/21, 좋은벗들 소식지)**

 - 북한의 일부 협동농장에서 4~6월 춘궁기에 식량난에 따른 영양실조등으로 농장별로 20~30여명씩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1일 주장, '오늘의 북한소식' 제194호에 실은 '2008 춘궁기 농민 아사 통계' 자료를 통해 남포시 강서구역 태성리농장에서 35명, 황북 신계군 정봉리농장과 황주군 흑교리농장에서 각각 32명과 28명, 강원 판교군 지하리농장에서 29명의 아사자가 발생했으며, 평양시 강서군 잠진리 농장에서 6명이 '폴독'으로 사망했다고 보도

- **北, 첫 '축산사전' 발간(8/21, 조선신보)**

 - 농업출판사가 축산관련 용어들을 총정리한 '축산사전'을 북한에서 처음 발간했다고 조선신보가 21일 보도, 사전에는 "집짐승 사양관리, 먹이의 특성과 생산 및 가공, 품종과 번식, 축산기계와 축산경영 등 각 분야의 연 3천500여개 올림말이 수록돼 있다"고 조선신보는 보도
 - 이번 사전 집필에는 북한의 축산분야 원사(최고 권위자 1인에게만 수여되는 학위), 교수, 박사 등 90여 명이 참여했으며, '국내 실정에 맞는 축산사전'을 목표로 축산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와 경험들을 집대성하고 다른 나라들의 자료도 깊이 있게 연구했다고 조선신보는 소개

- **北도마 금메달, '자매의 힘'(8/21, 조선신보)**

 - 여자체조 도마에서 북한에 베이징 올림픽 2번째 금메달을 안긴 홍은정은 언니인 수정씨도 체조선수로 평양시체육단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 독일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선 은메달을 따기도 함. 세계체조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로서 '공훈체육인' 칭호를 받은 수정씨는 이번 올림픽에 북한 여자체조에 배정된 출전권이 2명이고 이중 도마는 1명으로 제한되는 바람에 참가하지 못했음.
 - 자매는 올림픽 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였고 결국 올해 6월 올림픽 출전자로 동생이 낙점됐다. 세계선수권대회 4위였던 동생이 은메달리스트인 언니를 눌렀음.

- **정권 60돌 맞아 평양 새단장(8/21, 평양방송; 8/17, 조선신보)**

 - 북한 매체들이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 기념일(9.9)을 앞두고 '혁명의 수도'라는 평양 시내 곳곳의 거리와 건물, 시설들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는 사실을 반복해 보도
 - 평양방송은 21일 평양시가 대표적인 '새 단장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만수대거리 개선 공사의 경우는 지난달 11일 착공식 이후 "여러 사업소의 건설자들이 빠른 시일내에 수십개에 달하는 건물



들의 기초 콘크리트 치기를 끝내고 골조 조립공사를 벌여 나가고 있다”고 보도

- 방송은 또 개선거리, 칠성문거리, 모란봉거리, 문수거리를 비롯한 10여개 거리의 살림집(주택)과 봉사망(상가)의 외벽에 타일을 붙이는 공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소개
- 또 영광거리, 승리거리, 창광거리, 개선거리 등에서는 주택과 공공 건물의 나무 창문을 산뜻한 수지창문으로 교체하고 주택 베란다에 깨끗한 미닫이창을 설치하는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北 전골요리 1인자 김경숙씨(8/20, 조선신보)**

- 평양의 보통강변에 있는 청류관 주방장 김경숙(43)씨가 뛰어난 전골 요리 솜씨로 손님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0일 소개, ‘고3급’ 요리기술 자격과 ‘공훈요리사’ 칭호를 가진 김 주방장은 1986년부터 청류관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전골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가운데 끊임없는 요리기술 개발 노력으로 ‘전골요리 1인자’로 불리고 있다는 것

● **좋은벗들, 北 해주시, 어린이 우선 식량 배급(8/19, 좋은벗들소식지)**

- 황해남도 해주시가 식량난 속에서도 어린이들의 건강을 고려해 초등학교 학생 연령대 고아들의 숙식과 교육을 담당하는 초등학교에 식량을 우선 공급해 해주시 주민들이 감사와 기쁨을 표시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보도
- 이에 따라 해주시 초등학교는 규정량에 약간 못 미치지만 밀과 옥수수 7대 3으로 섞은 밥을 하루 세끼 어린이들에게 배식하고 반찬으로 남새(채소)와 소금물에 배추 섞은 국을 주고 있음.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정부, 北 검증안하면 에너지지원 속도조절(8/21, 연합뉴스)**

- 정부는 북한 핵프로그램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핵 6자회담 산하 경제·에너지지원 실무그룹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이 같은 방침을 지난 15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북핵 6자 수석대표 회의에서도 논의, 미국 측의 동의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는 7월 12일 종료된 수석대표회의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중유 및 비중유 잔여분 지원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검증체계 구축 시한과 관련,



“10월말까지 에너지 지원과 불능화가 완료돼야 하는데 그 전에는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10월을 시한으로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

● **김숙, 검증체계에 북·미 이견…인내심 필요(8/20, 연합뉴스)**

-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북핵 검증체계 구축과 관련,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
- 김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최근 미·북 간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 집중 협의했는데 아직까지 미·북 간에 내용상의 이견이 남아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언급

나. 북·미 관계

● **北·美 뉴욕서 핵검증 문제 협의(8/22, 연합뉴스)**

- 미국과 북한은 22일 뉴욕에서 회동,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핵 프로그램 검증체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벌임. 성 김 미국 대북협상 특사는 북한 협상파트너와의 협상에서 핵프로그램 검증문제를 놓고 집중적인 의견교환을 한 후 워싱턴 D.C.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짐.
- 이번 협의는 3주전 베이징에서 북미가 북핵 프로그램 검증방안을 논의한 이후 처음으로 열림. 앞서 성 김 특사는 8월 14일부터 베이징에서 중국의 북핵담당 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졌지만, 북측 인사와는 만나지는 못해 별다른 소득없이 이번 주 귀국
- 미국은 특히 플루토늄 뿐만아니라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 우라늄 농축의혹 등도 포괄적으로 핵검증체계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다. 북·일 관계

● **北,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 8월중 개시(8/23, 도쿄신문)**

- 북한은 일본과 양국 정부 실무자 협의에서 합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한 재조사와 관련, 8월중 재조사를 개시할 방침임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23일 보도
- 신문은 북일관계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8월 11일부터 이틀간 중국 선양(瀋陽)에서 개최된 양국 실무자 협의회가 끝난 뒤 “1-2주 이내에 조사를 재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힘. 일본은 협의회에서 재조사에 대해 생존하는 납치피해자를 찾아내 귀국시키는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 내려 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은 채 “재조사를 한다”는 표현만을 한 것으로 알려짐.



● **北, 신사참배는 군국주의 교육 공간(8/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일본의 전.현직 장관 등 고위급이 8월 15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재침의 길로 더욱 줄달음치려는 범죄적 기도를 드러내 놓은 것”이라고 비난, 신문은 “(일본) 국민들 속에 군국주의 침략사상을 불어넣는 것”이 신사참배의 배경이라며 “그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일본의 침략역사와 야마도(大和)정신을 계승하도록 국민을 무장시키는 일종의 교육공간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

라. 기타외교 관계

● **아세안 창립 41주년 연회 개최(8/22, 조선중앙통신)**

-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창립 41주년을 기념한 연회가 22일 평양 주재 촌 하이 캄보디아 대사와 레 반 쿠 베트남 대사, 차런 와린타라사 라오스 대사, 라히미 빈 하룬 말레이시아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과 김영일 부상 등이 초청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시리아 대사에 최수현 부상 임명(8/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시리아 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로 최수현이 임명됐다”고 보도
 - * 최 대사는 북한 외무성에서 국제기구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으며 외무성 국장을 거쳐 1986년부터 외무성 부상으로 활동하면서 유엔 총회에서 북한 대표로 연설하거나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기구와 협상에 주로 나섰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아동기금 등 유엔기구와의 창구 역할을 수행
 - * 북한 외무성에선 현재 박의춘 외무상, 강석주 제1부상 아래에 김창규(내부행정), 김계관(핵문제 및 대미관계), 김영일(아시아), 궁석웅(유럽), 김형준(중동.아프리카) 부상이 지역 및 분야를 분담

3. 대남정세

● **민노·北조선사회민주, 日규탄 공동성명(8/22, 연합)**

- 민주노동당과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은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일본은 독도침략과 재일동포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 양당은 성명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신성불가침의 영토”라며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독도 문제를 국제화하려는 일본의 책동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야망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 양당은 이어 “우리 두 당은 일본이 재침의 헛된 꿈을 버리고 우리



민족에게 끼친 죄악에 대해 성의 있게 사죄하고 배상하며 재일동포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남북 월드컵 최종예선 1차전 중 상하이 개최(8/21, 대한축구협회)**
 - 한국과 북한의 2010 남아공 월드컵 최종예선 B조 조별리그 1차전이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 대한축구협회는 21일 “FIFA(국제축구연맹)와 북한 축구협회가 9월 10일 평양으로 예정돼 있던 최종예선 1차전을 상하이에서 열기로 합의했다”며 “국기와 국가 사용, 응원단 문제 등은 FIFA 규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
 - 북한은 3월 한국과의 월드컵 3차 예선 평양 홈경기에 앞서 태극기와 애국가를 FIFA기(旗)와 FIFA가(歌)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FIFA의 중재로 상하이로 옮겨 경기를 치른 데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홈 경기를 상하이에서 열게 됐다. 경기 시간 및 경기장은 추후 통보될 예정

- **1~7월 민간서 北에 식량 4천t 지원(8/20, 통일부)**
 - 올해 1~7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식량 지원량이 4천t 규모에 이른다고 통일부가 20일 발표, 이 기간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쌀 150t, 밀가루 3천500t, 옥수수 550t임.
 - 또 이 기간 정부의 기금지원액을 제외한 순수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액은 318억원으로, 2007년 같은 기간 312억보다 다소 늘었다고 김대변인은 소개
 - 반면 대북 지원과 관련해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모두 2천617명으로, 2007년 같은 기간 4천450명보다 줄었음.

- **통일부, 남북교역 절차 간소화(8/19, 통일부)**
 - 정부는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해 교역 물품 반출·반입 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승인 대상 품목도 축소, 통일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역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예고
 - 이에 따라 남북교역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품목 중 관세율이 낮고 위장반입 등 국내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없는 견사, 포켓용 라이터, 무연탄 등은 승인대상에서 제외되고, 물품 반출입 승인 처리기간을 기존의 15일에서 10일로, 물품 반출입 승인사항 변경승인 처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키로 함.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美 뉴욕서 핵검증 문제 협의(8/23)

- 미국과 북한은 22일 뉴욕에서 회동,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핵 프로그램 검증체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벌였음. 성 김 미국 대북협상 특사는 북한 협상파트너와의 협상에서 핵프로그램 검증문제를 놓고 집중적인 의견교환을 한 후 워싱턴 D.C.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협의는 3주전 베이징에서 북미가 북핵 프로그램 검증방안을 논의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것. 앞서 성 김 특사는 지난 14일부터 베이징에서 중국의 북핵담당 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졌지만, 북측 인사와는 만나지는 못해 별다른 소득없이 이번 주 귀국했음.
- 국무부 측은 성 김 특사와 북측 관계자들간에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미국은 북한에 대해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만족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핵검증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음.
- 미국은 특히 플루토늄 뿐만아니라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 우라늄 농축의혹 등도 포괄적으로 핵검증체계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中, 올림픽후 검증협상 적극 중재할 듯” <RFA>(8/20)

- 북한은 미국과 핵검증 협상에서 핵시설에서의 시료 채취에 반대하고 문서 검증과 과학자 면담만 허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9일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이 소식통은 최근 미국 국무부 당국자들과 면담에서 이같은 북한 측의 입장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음.
- VOA는 미국은 핵시설에 대한 시료 채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서 검증과 과학자 면담은 과학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서 검증과 과학자 면담만 허용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상 검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북미간 검증체계 협상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중국이 중재안을 내놓고 부시 미 행정부에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가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했다.



● 김숙 “검증체계에 북·미 이견..인내심 필요”(8/20)

-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북핵 검증체계 구축과 관련,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최근 미·북 간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 집중 협의했는데 아직까지 미·북 간에 내용상의 이견이 남아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 북한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한·미 등이 요구하고 있는 샘플채취, 불시방문,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허용 등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 본부장은 이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중국이 베이징올림픽 이후 북·미 간 협의에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 정부 고위당국자는 “합의도출이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낙담하거나 절망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북한이 철저한 검증체계 수립에 말로는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는 별로 진지하게 협조를 안해오고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 美, 테러지원국 해제 “공 北에 넘어가”(8/19)

- 미국은 19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 “공은 북한 쪽에 넘어가 있다”며 북한이 핵 검증체제를 먼저 마련해야 북핵 6자회담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검증 패키지를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북한으로부터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공은 북한 쪽에 넘어가 있다”고 말했다.
- 우드 부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건과 관련, “매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검증체제를 마련해 다른 참가국들을 만족시킬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북핵 검증 패키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

● 北 “핵무기, 동북아안보체제와 연계 논의”(8/19)

-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대북 에너지 지원 완수와 영변 핵시설 불능화 완료→북핵 신고검증과 핵시설 폐기에 상응한 남한내 핵무기 부재 검증과 대북 경수로 제공→핵무기 문제와 동북아시아 평화안보체제 수립 논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2단계 마무리와 3단계 논의 전망, 핵무기 문제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북한 내부 문건을 통해 자세히 드러남.
- 19일 발매된 시사 월간지 ‘월간 조선’ 9월호에 전문이 실린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에 대하여'라는 북한 문건은 6자회담의 3단계 논의 초점이 ▲북한의 핵신고 검증과 핵시설 해체 및 핵물질(플루토늄) 포기 ▲남한내 핵무기 부재 검증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미국 등 5개국의 대북 경수로 제공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수립에 모아질 것으로 예상했음. 월간 조선은 이 문건이 북한 통일전선부가 일본의 조총련에 내려보낸 강연자료라고 말했다.

● “美, 내주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說” <RFA>(8/19)

- 미국이 이르면 오는 25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미국과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를 인용해 19일 보도. RFA는 이러한 관측 배경에 대해 ‘워싱턴의 일본 전문가’는 해제 시한인 11일을 2주일 넘긴 25일까지 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이 그동안 미국과 맺은 여러 합의를 모두 뒤엎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미국측 관계자로부터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가) 들었기 때문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 이런 관측에 대해,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 부대변인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들은 바 없다”며 “우리는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검증체 제안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밝혔다고 RFA는 소개했음.

● 美, 北 테러지원국 해지지연 비난 반박(8/19)

- 미국은 18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을 비판한 것과 관련,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이 엄격한 핵검증 체제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이 북한의 핵검증 패키지 제출임을 다시 한번 강조.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행동 대 행동을 필요로 한다”며 “우리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 현재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핵검증 패키지”라고 밝혔음.
-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은 미국 등이 참여하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는 모두 그러한 검증 패키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우드 대변인은 북한의 비판에 대해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지지한다”며 북한이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든 그것은 북한의 자유지만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

● 北 “부시 인권제기, 6자회담 난관 조성”(8/18)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태국을 방문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은 “6자회담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나아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10.3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고의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음.

- 중앙통신은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을 파탄시키려는 도발 행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떠드는 인권문제는 그들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 수행을 위해 회담을 지연시키거나 파탄시켜야 할 필요가 제기될 때마다 들고 나오는 상투적 수법”이라며 이같이 주장. 통신은 부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행각 과정”이라고만 말했음.
- 통신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가 연기된 것도 거론, “미국은 합의 이행을 완결하는 데서 관건적인 정치적 보상조치의 하나로서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한 공약을 이행기일이 지난 오늘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비핵화 실현에서 기본인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지적.

● 한미, 이달내 북핵 검증체계 구축 추진(8/18)

- 성 김 미국 대북협상특사가 18일 외교통상부 당국자들과 만나 북핵 검증체계 구축과 비핵화실무그룹 회의 개최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한·미는 특히 미국의 대선후보가 공식 선출돼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접어드는 이달 말 전에는 검증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판단, 북한이 검증 이행계획서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즉시 비핵화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 소식통은 이날 “성 김 대북특사가 오늘 황준국 외교부 북핵 기획단장과 회동하고 검증체계의 조속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성 김 특사는 지난 14일부터 베이징에서 중국의 북핵 당국자들과 협의했지만 북측 인사와는 만나지 못한 채 지난 주말 방한했음.

나. 미·북 관계

● “완화된 검증-미군기지 사찰로 타결 가능” <전문가> (8/22)

- 북한이 미국과 핵협상에서 경수로 제공 약속을 원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의 정통한 외교 전문가”를 인용해 22일 보도. 최근 한두달 사이 여러 명의 북한 관리와 접촉했다는 이 전문가는 “북한 관리들이 핵검증 협상과 관련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경수로 제공과 관련, 미국의 약속이 없는 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음.
- 이 전문가는 “미국 측은 대북 경수로 문제에 대해 의도적으로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 관리들은 만날 때마다 반드시 경수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경수로 제공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담보를 원하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로서는 정



치적으로 들어주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고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적대 정책 포기의 구체적인 증거로 경수로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 전문가는 덧붙였음.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의 랄프 코사 소장은 북미간 검증 협상과 관련, 미국이 검증요구 수준을 낮출 경우 10월 말까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그 합의안은 미국이 지금까지 요구해온 것보다 약간 덜 철저한 형태의 검증이 되고 북한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주한 미군기지 사찰을 허용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음.

● 北매체 “을지연습, 남북관계에 어두운 그늘”(8/22)

- 북한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2일 한미 합동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종료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번 을지연습이 “조선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핵전쟁 위험을 더욱 증대시키고 북남 관계 발전에 한층 어두운 그늘을 던지고 있다”고 비난했음.
- 이 매체는 을지연습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공화국(북한)에 대한 핵 선제타격 음모를 실현해보려는 미국과 남조선(남한) 군부 호전광들의 책동이 전쟁도발 직전에 들어섰다는 것이 다시 한번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음.
- 매체는 또 남한과 미국이 말하는 “‘평화’와 ‘안정’, ‘관계개선’이란 내외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파렴치한 궤변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명박 정부를 향해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음.

● “北식량분배소에 ‘미국의 선물’ 명시”<VOA>(8/22)

- 북한과 미국은 미국의 대북 원조식량을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모든 장소에서 한국어로 ‘미국에서 보내온 선물’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식량 자루 두 개를 세워놓기로 합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미 구호단체인 ‘머시 코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2일 보도. 머시 코어의 조이 포렐라 대변인은 VOA와 인터뷰에서 또 “(북한에서) 분배와 마찬가지로 모니터 활동도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감시를 희망한 모든 분배 장소에 대한 접근이 허용됐고, 일부 장소의 경우는 24시간 사전 통고를 해야 했다”고 말했음.
- 미국의 지원식량을 분배하는 세계식량계획(WFP)은 평양에 있는 기존의 대표사무소 외에 평양, 청진, 함흥, 해주 4곳에 지역사무소를 신설해 각각 중부, 동북부, 남동부, 남서부 지방을 담당토록 했으며 한국계 미국인인 한국어 구사자를 포함한 59명의 분배 감시요원의 충원을 거의 마쳤다고 VOA는 전했다.
- 최근 북한을 방문한 월드 비전의 빅터 슈 북한담당국장은 북한에서 상주할 감시요원들의 원활한 구호활동을 위해 VSAT(위성통신용



초소형 기지국)를 통한 원활한 전화망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 미 외교전문가 46%, 미국 대북정책 진전 평가(8/21)

-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 전문가들의 평가가 최근 2년 사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미국의 격월간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 최신희(9~10월호)에 따르면 포린폴리시와 미국발전연구소(CAP)가 전문가 117명을 상대로 지난 4~5월 조사한 결과 전문가의 46%가 미국의 대북정책이 국가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답했다. 이는 2년 전 같은 조사 때보다는 35%포인트, 1년 전보다는 12%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대북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27%에 불과했다.
- 10점을 만점으로 하는 분야별 미국 외교정책의 평가에서는 대북정책이 5.2점을 받아 ▲아프가니스탄 재건정책 4.3점 ▲이라크전 정책 4.1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책 3.3점 ▲이란 정책 2.8점 등 조사 대상항목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
- 북한의 위협정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줄어들 것’이 35%, ‘현 상황 유지’는 44%,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2%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 핵확산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우려를 나타냈다.

● 北외무성 “UFG때문에 美검증 요구에 더 각성”(8/20)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비난하면서 “미국이 핵문제와 관련해 들고 나오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검증’과 같은 부당한 요구들에 대해 더더욱 각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당국은 18일부터 남조선 전역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 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있다”며 “이 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으로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당국이 추구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북남대결 정책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 그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운운하는 ‘조선반도 유사시’가 곧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선제 공격이라는 것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북한은 핵검증 요구에 각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美연구가 “악의 축 국가와 ‘식탁외교’ 해야”(8/20)

- “악의 축 국가들의 요리를 배워서 미국의 저녁식사에 초대하는 ‘식탁 외교’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의 국제정책 분석가인 크리스 페어는 북한, 이란, 이라크 등 조지 부시 정권에 의해 ‘악의 축’으로 낙인찍힌 국가들을 음식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이해하고 상호소통해야 한다는 내용의 책을 최근 출간했다.



- ‘악의 축 국가와 기타 짜증나는 국가들의 음식’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북한 등 ‘악의 축’ 국가는 물론 핵비확산조약(NPT) 미가입국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민주주의와 인권이 열악한 쿠바, 미얀마, 중국을 식사초대 대상국가로 삼고, 각국의 음식 조리법을 소개하고 있음.

● 매케인 “김정일은 약속안지켜 신용잃어”(8/19)

- 미국의 공화당 대선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18일(현지시간) 북한 핵문제와 관련, “김정일은 클린턴 행정부때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았고, 현재도 회담이 진행되고 있지만 약속한 시간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용을 잃었다”면서 “따라서 김정일이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음.
-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날 오후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내의 메리엇 머어퀴스 호텔에서 열린 대선 자금 모금 만찬 행사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기 전 행사를 준비한 재미동포 박선근 조지아주 향만청 부이사장 등 핵심 지지자 16명을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 부이사장이 전했다.
- 매케인 상원의원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며,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박 부이사장의 질문에 이같이 말한 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제일 큰 손해는 북한 주민들이며 이들은 끔찍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이어 북핵문제 해결책과 관련, “우리는 반드시 서로 앉아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겠지만 북한이 약속을 안지킨 전력에 있어 의심이 가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음.

● “北당국, 남북 종단 고급차 행진 제안”<RFA>(8/19)

- 북한 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세계 부자와 유명인들의 고급 자동차 행진 대회인 검볼 랠리의 한반도 종단 행사를 제안했다고 검볼 랠리의 막스밀리언 쿠퍼 회장이 밝혔다. 쿠퍼 회장은 이에 따라 남북한을 종단하는 자동차 행진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으며 곧 한국 정부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 쿠퍼 회장은 북한 문화성이 지난 13일 중국내 검볼 랠리에 참가한 백만장자들을 평양으로 초청, 만찬을 마련하고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행진을 제안했다며 “북한 관계자들은 우리가 자동차를 북한으로 가져간 뒤 비무장지대를 지나 한국으로 종단하는 행진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 이 계획이 성사되면 포르쉐, 페라리 등 세계의 최고급 자동차 120대가 중국을 출발, 평양을 지나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한국에 도착하는 코스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 검볼 랠리는 백만장자들이 최고급 자동차로 세계 곳곳을 달리는 대회로, 올해는 베이징올림픽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라스베이거스를 거쳐 수송기로 중국으로 이동한 뒤 난징, 상하이, 수저우를 경유해 16일 베이징에서 행진을 마쳤음. 랠리 참가자들은 지난 13일 평양에 초대돼 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하고 음악회까지 연 것으로 알려졌다.

● **탈북재미학자 美잡지에 ‘김정일 이야기’ 기고(8/19)**

- 미국에 정착한 한 탈북학자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최신호(9~10월호)에 ‘김정일의 숨은 이야기’라는 글을 기고, 자신이 경험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어릴 적 모습 등을 전했다.
- 지난 1992년 탈북한 후 버지니아 주 조지메이슨대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김현식(76) 전 평양사범대교수는 이 글에서 가혹하고 변덕스러운 독재자로 알려진 김 위원장을 지난 1959년 10월 처음 봤을 때는 ‘얼굴이 빨개지는 부끄러움이 많은 학생’이었다고 기억했음.
- 김 교수는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김 위원장이 평양 남산고급중학교 3학년 때 러시아어를 가르칠 때 회화 보다는 문법에 뛰어났으며 “김정일은 위대한 지도자의 아들이라는 점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시험을 치렀다”고 전했다. 특히 “회화시험 동안에는 얼굴이 빨개졌고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까지 맺혔다”고 덧붙였다.
- 김 교수는 “50년도 더 지난 지금도 내가 김정일에게 한 질문과 대답이 생각난다”면서 그는 떠듬거리는 러시아어로 “나는 우리 아버지를 제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나는 스포츠보다 영화를 더 즐깁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 김 교수의 김 위원장에 대한 기억과 개인사 등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해 한국에서 ‘나는 21세기 이념의 유목민’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된 바 있음. 그는 탈북한 뒤 서울에서 10여년 간 머문 뒤 예일대 초빙교수를 거쳐 현재 조지메이슨대 교수로 있으면서 워싱턴 북조선연구학회 대표를 맡아 북한말 성경발간과 북한학생을 위한 영어사전 만들어 보내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음.

● **“北, 아프간서 美스팅어미사일 사들여” <CRS>(8/19)**

- 북한이 지난 1990년대 초반 러시아의 지원을 받던 아프가니스탄 나지불라정권이 붕괴한 뒤 아프간에서 미국제 휴대용대공미사일인 스팅어미사일을 되사들인 것으로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서 드러났음.
- 연합뉴스가 입수한 CRS의 지난 8일자 ‘아프가니스탄:전후 지배체제, 치안 그리고 미국정책’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5년말부터 당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아프간의 무자헤딘이 러시아 항공기에 맞서 싸우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팅어미사일 2천기를 제공했음.



- 미국은 이어 1992년 러시아의 지원을 받던 아프간 나지불라 정권이 붕괴한 뒤 무자헤딘에 제공했던 스팅어미사일을 회수하기 위해 1천만달러(100억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북한, 이란 등 또 다른 구매경쟁자들 때문에 이런 노력이 실패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음.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이 아프간에서 스팅어 미사일을 몇 기나 구매했는지 언급하지는 않았음. 스팅어 미사일은 레이더를 피해 저공으로 날아오는 적의 제트기·프로펠러기·헬리콥터 등을 단거리에서 명중시킬 수 있음.

● 북한군, 을지연습 철회 촉구(8/18)

-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18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북침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훈련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면서 즉각 중단을 요구.
-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군측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시작했다”며 “미 군부의 새로운 전쟁 각본에 따라 감행되는 이번 합동 군사연습은 우리의 전략적 거점에 대한 미제 침략군의 중·장거리 정밀타격과 신속 기동타격의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 새로운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비난.
-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미군측의 전쟁연습으로 조성된 엄청난 정세에 대처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침략 무력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의 자주권과 귀중한 사회주의 제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무자비한 보복타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미군측은...합동군사 연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 “北, IMF·ADB 가입 美보장 요구”<RFA>(8/18)

- 북한이 미국과 핵검증 협상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위한 미국의 확실한 지원 약속을 요구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를 인용해 17일 보도.
- 최근 평양을 방문했다는 이 전문가는 북한이 이와 같은 미국의 확약을 “핵검증 동의를 담보”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ADB로부터 이자부담 없이 자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ADB 가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 중·북 관계

● “중국국제항공, 손님없이 평양노선 감축”(8/18)

- 중국 국영 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이 오는 11월부터 평양 정기노선 운항 회수를 주 3회에서 2회로 감축 운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



정의 외교 소식통들은 18일 “중국국제항공이 승객 탑승률 저조를 이유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동절기에 주 2회로 감축 운항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국제항공은 베이징-평양 정기노선을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주 3회 운항했으나 앞으로 수요일 왕복 항공편이 없어지게 됨.

라. 일·북 관계

● 北신문 “신사참배는 군국주의 교육 공간”(8/23)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일본의 전·현직 장관 등 고위급이 지난 15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재침의 길로 더욱 줄달음치려는 범죄적 기도를 드러내 놓은 것”이라고 비난했음.
- 신문은 ‘장송곡을 불러오는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반동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놀음을 통해 침략역사를 옹호하고 국민을 군국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결과로 그들에게 차려질 것은 수치스러운 파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일본) 국민들 속에 군국주의 침략사상을 불어넣는 것”이 신사참배의 배경이라며 “그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일본의 침략역사와 야마토(大和)정신을 계승하도록 국민을 무장시키는 일종의 교육공간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 이달중 개시”(8/23)

- 북한은 일본과 양국 정부 실무자 협의에서 합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한 재조사와 관련, 이달중 재조사를 개시할 방침임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23일 보도. 일본 정부는 조사 재개가 확인되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가운데 인적 왕래와 항공 전세편 운항에 관한 규제를 해제할 방침이지만 재조사가 일본 측이 최우선하고 있는 피랍자의 발견과 귀국으로 연결될 지는 불투명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 신문은 북일관계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이달 11일부터 이틀간 중국 선양(瀋陽)에서 개최된 양국 실무자 협회가 끝난 뒤 “1~2주 이내에 조사를 재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음.

● “日, 9월초 대북제재 일부해제 가능성 배제 안해”(8/19)

- 지난주 북한과 일본이 6자회담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납치문제 재조사 착수와 경제제재 일부 해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달초 대북제재 일부 해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9일 보도.
- 통신에 따르면 외무성측은 이날 제1야당인 민주당과 국회에서 가진 외무방위부문 회의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음. 인적 왕래 금지 및 전



세항공기 취항 금지 해제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의 건국 60주년 기념일인 9월 9일에 북한 전세기가 일본에 들어와, 북한 사람이 입국할 수 있느냐”고 질문한데 대해 외무성 관계자는 “재조사 실시 진척 상황을 확인해 조건이 정비되었다고 판단되면 있을 수 있다”고 답했음. 그러나 일부 해제의 조건인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외무성 관계자는 “북한측은 우리에게 아직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고 있다”고 답했음.

● 후쿠다 “납치담당상 방북 가능”(8/19)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나카야마 교코(中山恭子) 납치문제담당상의 방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후쿠다 총리는 18일 총리 공저에서 나카야마 납치문제담당상 및 남편인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의 경우 나카야마 납치문제담당상이 북한에 들어가야 될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 문제 진전을 위해서는 납치문제담당상의 방북도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9일 전했다.

마. 기타

● “北-英재보험사 11월 英법정서 격돌”<RFA>(8/22)

- 북한 당국과 영국 재보험사간 보험금 지급 공방이 오는 11월11일 영국 법정에서 재판 재개를 통해 마무리 될 전망이다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전했다.
- 북한의 조선국영보험공사(KNIC)는 2005년 7월 고려항공 소속 헬리콥터가 평양 인근 창고에 추락, 창고에 보관중이던 구호물자가 모두 불탔다며 고려항공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중개그룹 로이드 소속 영국 재보험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했음. 그러나 재보험사측은 북한이 사고 발생 열흘도 안돼 수십만 가지 피해 품목을 제출하는 등 주장이나 증거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며 북한 법원이 판결한 4천만달러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음. 북한 KNIC를 대리하고 있는 영국 법무법인 ‘엘본 미첼’의 앤드루 스티븐슨 변호사는 11월 재판에서 북한 법원이 판결한 4천만달러보다 절반 이상 늘어난 6천600만달러의 보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혀 이자와 소송비용을 합치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 이에 대해 영국 재보험사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클라이드’의 마이클 패이튼 변호사는 북한측의 피해 증빙 서류 등에서 북한 당국의 주장이 거짓이고 조작이라는 것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음.



● 뉴질랜드, 北학생 10명 국비로 초청(8/21)

- 뉴질랜드 정부가 북한 학생 10명을 국비 장학생으로 초청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뉴질랜드 외교부의 데이비드 테일러 아시아담당 국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
- 북한 당국은 뉴질랜드 정부의 장학생 초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현재 양국간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최종 결정날 경우 북한 유학생들은 뉴질랜드 제4의 도시 해밀턴에 있는 기술전문대학에서 영어, 정보기술(IT), 보건의료 등을 전공하게 된다고 테일러 국장은 설명했다.
- 이 사업을 돕고 있는 뉴질랜드의 민간단체 ‘뉴질랜드-북한 소사이어티’의 돈 보리 이사장은 북한측과 최종합의만 남았다며 양국간 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발전, 평화적 관계를 쌓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北, 시리아 대사에 최수현 부상 임명(8/18)

- 북한이 시리아 주재 신임 대사에 최수현 외무성 부상을 임명.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시리아 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로 최수현이 임명됐다”고 보도.
- 최 대사는 북한 외무성에서 국제기구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으며 외무성 국장을 거쳐 1986년부터 외무성 부상으로 활동하면서 유엔 총회에서 북한 대표로 연설하거나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기구와 협상에 주로 나섰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 아동기금 등 유엔기구와의 창구 역할을 하기도 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WFP, 한국에 ‘6천만달러 지원’ 기대(8/23)

- 북한의 식량 사정이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던 1990년대 중반과 같은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남한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장 피에르 드 마저리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장이 23일 강조.
- 드 마저리 소장은 이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WFP가 다음달 시작하려는 5억 달러 규모의 긴급지원 사업에 한국 정부가 최대 공여국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대규모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WFP에 2천만 달러 이상, 혹은 6천만 달러 까지도 지원해 준다면 저희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며 “지난 해 WFP 대북지원 사업에서 40%(미화 2천만 달러) 가량의 지원을 제공했던 한국의 지원이 없을 경우 WFP의 대북사업 규모는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음.



- 북한 식량사정과 관련, 그는 황해남북도와 함경남북도 등 WFP가 담당한 8개 지역은 아사자가 나올 정도로 식량사정이 극심한 상황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은 ‘인도주의적 비상사태’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

● WFP “이른 시일내 南 대북지원 기대”(8/21)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드 마저리 평양사무소장은 “한국 정부가 아주 이른 시일 내 WFP의 대북 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21일 VOA에 따르면 마저리 소장은 “한국 정부에 WFP의 사업계획과 필요 자금 등을 꾸준히 알려주고 있으며 협의 창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 마저리 소장은 내달부터 북한에서 확대된 식량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문서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문서작업이 완료되면 곧바로 한국 등 각국에 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 정부에는 WFP의 사업계획과 필요 자금을 꾸준히 알려주고 있으며, 협의 창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아주 이른 시일내에 WFP의 대북 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WFP, 10일내 한국에 대북 식량지원 요청(8/19)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앞으로 7~10일 내 한국을 비롯한 식량 지원국에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폴 리슬리 WFP 대변인이 밝혔다.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9일 리슬리 대변인이 “현재 북한에서 긴급구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공식 요청서의 세부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 WFP는 내달부터 15개월간 620만명의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5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긴급구호사업을 시작할 계획.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앙리 조세랑 세계식량정보국장은 올해 북한의 곡물 수확량을 300만~350만t으로 예상. 그는 북한의 곡물 수확량 추정치가 이렇게 크게 변동함에 따라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 최근 북한 당국에 작황 조사단을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 북한으로부터 ‘고려해보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히고, 조사단의 파견이 성사되면 WFP와 함께 내달 말부터 10월 초나, 10월 초에서 같은 달 중순까지 3주 정도의 일정으로 방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한미, 내주 방위비분담협상 재개(8/18)

- 한국과 미국이 오는 28일께 서울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2차 협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8일 “지난달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협의를 토대로 오는 28일께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적으며 올해 말까지 후속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 쪽이 전액 부담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협정으로, 그동안 2~3년 단위로 체결해 왔으며 7차 협정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
- 지난 해 한국은 전체 국방예산의 2.94%인 7천255억원 상당을 제공, 전체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42% 정도를 부담했음.

● 한미 UFG 연습 시작..韓 주도-美 지원(8/18)

- 한반도 안전보장과 한·미 연합 방어태세 유지를 위한 을지프리트엄 가디언(UFG) 연습이 18일 오전 6시 닷새간 일정으로 시작됐음.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을지포커스 렌즈(UFL) 연습에서 명칭을 바꾼 UFG 연습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실시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연습(CPX).
- 1975년 첫 연습이 시작된 이래 34회째를 맞는 이번 연습은 군단, 함대, 비행단급 이상 지휘부 등 5만6천여 명의 한국군과 해외 전개 미군 및 주한미군 1만여 명 등이 참가하며 위기상황 조성보고, 위기 관리연습, 모의지원연습, 훈련강평 등의 순서로 진행됨.
- 한·미 양국 군은 연합훈련 사상 최초로 한측 합동군사령부(JFC)와 미 한국사령부(US KORCOM) 등 각각 독립된 사령부를 편성. 김태영 합참의장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를 각각 지휘. 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4천여 개 기관은 UFG 연습과 연계해 전·평시 국가위기관리 종합연습을 실시.

나. 한·중 관계

● 李대통령-후진타오, 25일 북핵 협력방안 논의(8/18)

-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서울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양국이 18일 공식 발표. 이번 회담은 후 주석이 25~26일 1박2일간 한국을 국빈방문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으로, 양 정상은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방중 이후 이번에 세번째 만나게 되는 것. 후 주석은 주석 취임 이후 두번째 한국 방문.
-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5월 회담에서 합의한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방안과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밝혔다.



- 양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분야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에너지 절약 협력 양해각서 ▲사막화 방지 양해각서 ▲한중 무역투자 정보망 운영 및 유지 협력 양해각서 ▲첨단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 양해각서 ▲한중 교육교류약정 ▲따오기 기증 및 한중 따오기 증식·복원 협력 강화 양해각서 등에 서명할 예정. 두 정상은 또 이번 회담을 통해 양 정상 간 우의와 신뢰를 확인하고 상호 방문 외교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유엔과 각종 지역 협력기구에서의 협력, 기후변화 관련 협력,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및 국제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협력 등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을 확대할 방침.

● 中 공산주의청년단 150명 방한(8/18)

- 허젠커(賀軍科) 공산주의청년단(共靑團) 중앙서기처 서기가 이끄는 중국의 청년 지도자 150명이 한·중 청소년교류 행사 등을 위해 18일 방한했음. 이날 오후 제주 공항에 도착한 공청단 대표단은 김태환 제주도지사 초청 만찬 참석을 시작으로 한국에서의 9박10일 일정에 들어갔음.
- 공청단은 19일 도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20일 부산으로 이동해 양국 청년 대표들이 진행하는 한중 차세대리더십대회 심포지엄에 참석할 예정. 대표단은 이어 대전을 거쳐 서울에서 보건복지부, 외교교통상부, 국회 등을 방문, 각계 인사들과 면담하고, KAIST, 고리 원자력발전소, 광양제철소 등 산업시찰과 이천 도자기 단지 등에서 ‘한국 체험’ 행사도 가짐.

다. 미·러 관계

● 美 “러 국제위상 휴전준수에 달려”(8/18)

- 미국은 17일 러시아와 그루지야의 분쟁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러시아에 그루지야에서의 즉각적인 군대철수와 휴전협정 준수를 거듭 요구했음.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디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게 그루지야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면서 이제까지 철군과 휴전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라이스 장관은 러시아 군대가 그루지야의 여러 도시와 항구 그리고 동서부 고속도로를 따라 계속 주둔하는 모습은 “용인할 수 없다”면서 “러시아 대통령이 약속을 한 만큼 이번에는 그가 약속을 준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 라이스 장관은 또 남오세티야에서 평화유지군을 주둔시켜왔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러시아는 이번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 지역으로 모든 병력을 철군시켜야 한다고 강조.